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2024

동북 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의견교환과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서 상호우호와 이해를 촉진하고 글로벌한 시점에서 지역의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1 실시시기

2024년 8월 8일(목), 8월 9일(금) 2일간 13:00~16:00

2 실시방법

온라인 형식 (Zoom)

3 주최 등

- 주최 : 톰스크주 (러시아), 도야마현
- 주관 : 공익재단법인 NPEC

4 참가자

동북아시아지역 중고등학생 261명 (3개국 5자치단체)

- 일본 : 5명 (도야마현 5명)
- 중국 : 5명 (랴오닝성 5명)
- 러시아 : 16명 (알타이 지방 4명, 하바로프스크 지방 6명, 톰스크주 6명)

5 테마

지구를 소중하게 : 푸르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

6 내용

※ [배부자료 전체는 여기를 클릭](#)

※ [다이제스트 동영상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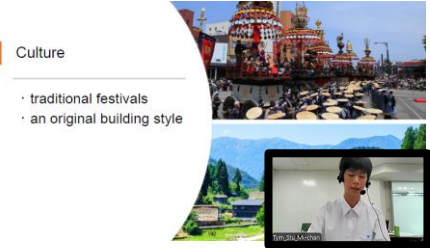
(1) 개회인사

러시아·톰스크주 국제·지역관계국장 A.A. 스투카노프 님



(2) 문화교류 · 활동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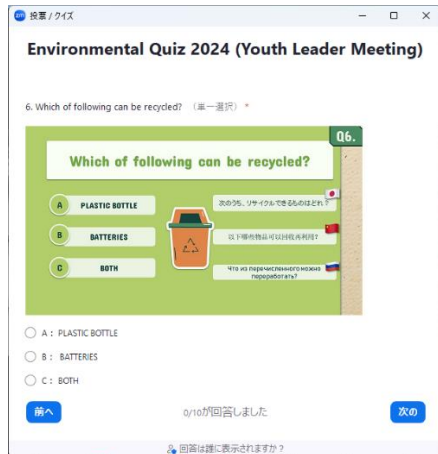
각 지역의 문화 · 풍습과 각자치단체에서 참가학생들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전활동내용을 발표함과 동시에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상호이해를 높였다.

자치단체명	문화 · 풍습 소개 개요	활동발표 개요
랴오닝성 (중)	 랴오닝성 다이렌의 역사, 지리, 경승지 (濱海路 · 東港) · 식문화 등 풍습, 다이렌 제일중학교 소개	 사도랴오지산(蛇島老鉄山) 국가자연보호구 의 살무사 ·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실시한 워크숍, 표류쓰레기 수거 등에 대해 소개
도야마현 (일)	 ※도야마 제일고등학교 도야마현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다테야마 · 도야마만) , 문화 (축제 · 고카야마) , 산업 (쌀 · 해산물 · 약) 등 풍토에 대해서 소개	 ※후시키고등학교 지구온난화대책, 해양오염대책, 리사이클 추진을 위해 실현하고 있는 활동 (LED화, 해안청소, 쓰레기분별) 에 대해서 소개

알타이지방 (러)	 러시아 유수의 농업, 공업, 관광 지역으로서 역사와 산업의 특징, 각종이벤트에 대해서 소개	 알타이지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삭감을 위한 활동 (환경교육, 폐기물분리수집 등) 에 대해서 소개
하바로프스크지방 (러)	 지역의 풍요로운 식생과 생물 등 자연환경,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그룹을 소개	 농촌부에서 패트병 수거 활동과 자원봉사 단체 「해바라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몽 활동에 대해 소개
툼스크주 (러)	 자연환경과 역사가 융합된 도시나 환경보호활동 중심이 되고 있는 세베르스키 자연공원 등 소개	 「선구자 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자연보호 활동 (하천의 청소활동, 자연 보호구에서 필드워크 등) 에 대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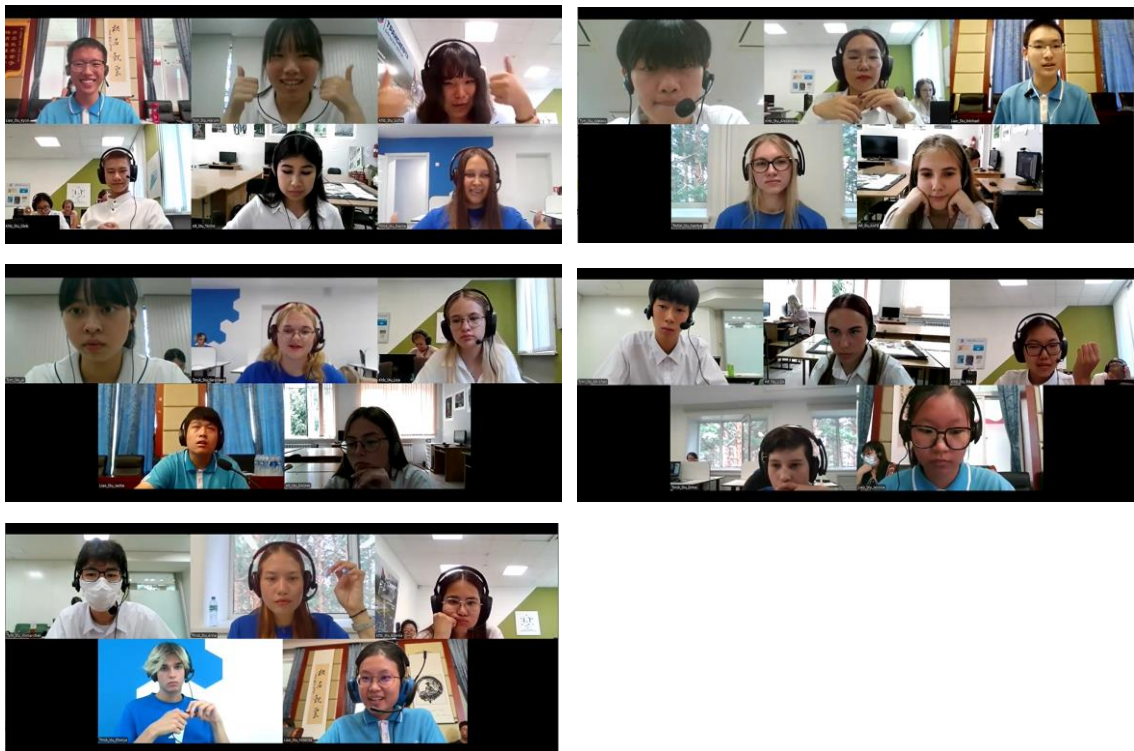
(3) 환경 퀴즈

환경보전에 관한 퀴즈를 통해 즐기면서 환경보전에 대해 공부함과 동시에 참가자간 교류를 도모했다.



(4) 자유교류

소인원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전체를 통한 질의응답, 의견교환, 이문화 교류 등의 자유교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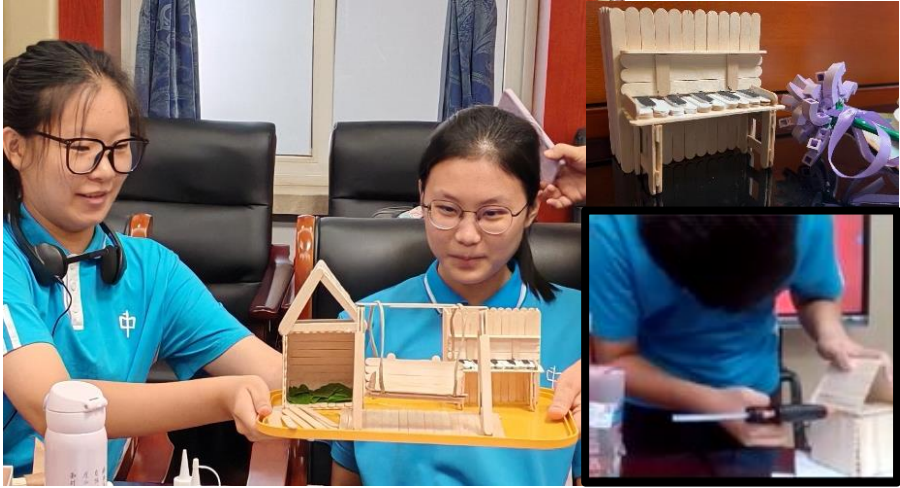


(5) 체험활동

「쓰레기에서 보물로 (Trash to Treasure)」를 테마로 자치단체별로 리사이클·업사이클 작품*을 제작하고, 제작의도 발표·의견교환을 실시했다.

※리사이클 : 사용한 것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것

업사이클 : 원래 있던 것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

자치단체	작품 및 제작의도
랴오닝성 (중)	 『아이스크림 막대로 만든 「피아노」, 「그네」, 「새집」』 다이렌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다이렌 바다의 파도음을 연주하는 것으로 피아노를, 다이렌 사람들이 옥외활동을 즐기는 심볼로 그네를, 자연과 지구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새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 아이스크림 막대라는 쓰레기를 활용해 무단투기를 하지 않기와 리사이클을 홍보하고 싶다.
도야마현 (일)	 『가정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천을 활용한 「컵받침」과 「북커버」』

	시장에서 주류가 된 합성섬유는 분해하기 어렵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리사이클하기로 생각했다. 작품은 학생들이 본인들 집에서 이용한다.
알타이지방 (러)	 『여러가지 식용 용기의 뚜껑으로 만든 「오콜리지칼센터 간판」』 간판에는 집을 모티브로 해서 속에는 아이를 그려넣고 「feel at home(내집처럼)」을 표현했다. 지붕에 있는 나무는 자연환경보호 심볼이다. 작품은 시설에서 전시하고 여러 이벤트에서 활용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다.
하바로프스크 지방 (러)	 『패트병과 빨대로 만든 아름다운 꽃 「마르타곤백합」』 마르타곤백합 (학명 <i>Lilium martagon</i>, 백합과) 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 피는 꽃이기도 하고 지역의 심볼이 되기도 하며 멸종위기종이다. 생물의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툼스크주
(러)



『생활속에서 나온 쓰레기로 만든 「체브라시카」』

체브라시카는 세대와 문화, 국가의 범위를 넘어 친절, 관대, 우정과 타인에 경의를 상징하는 캐릭터. 「쓰레기」를 유효하게 사용해 아트작품을 만들어서 창조성과 오래된 것에 2 번째 생명을 부여한다는 가능성을 표현했다.

(6) 환경선언

참가자 대표 (툼스크주 학생) 가 「환경선언문」 을 발표했다.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2024 환경선언문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 5자치단체 대표로 2024년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에 참가했습니다.

「지구를 소중하게 : 푸르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를 테마로 친환경적인 현명한 소비생활, 환경보전, 폐기물 리사이클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지역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보물로 (Trash to Treasure)》를 테마로 한 아트제작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 순환적인 이용이 천연자원 소비억제와 폐기물 삭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리사이클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천연자원 고갈 등 여러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환경 보전이 매우 중요하고 젊은 세대들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 협력해서 행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향후에도 환경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참가하고, 주변지역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발신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푸르른 미래와 우호를 위해 힘을 모아봅시다 !

2024년 8 월 9 일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 참가자 일동

(7) 폐회인사(비디오 메시지)

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참사 나카지마 히로시게

